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5. 2. 14.(금)

중국 내 우리기업의 최대 투자지역인 장쑤성(옌청시)과 지원 방안 협의

- 한중 산업협력단지(옌청)에 자동차·배터리 등 우리 주요기업 투자 집중
- 장쑤성 옌청시 당서기 방한 계기 현지 우리기업 지원 방안 등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2.14.(금) 11:00 서울 (조선팰리스호텔)에서 중국 장쑤(江蘇)성 옌청(鹽城)시 현지 우리기업 지원 및 한중 간 경제협력을 증진하기로 하였다.

지난해 장쑤성의 경제규모(GRDP)는 우리나라(24년 기준 1.87조 달러)를 초과하는 약 1.92조 달러로 중국 내 31개 성시 중 광둥성에 이어 2위를 차지하며 우리의 최대 교역·투자 지역*이다. 장쑤성에는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핵심 분야 우리 주요 기업들(쑤저우 삼성전자, 우시 SK하이닉스, 옌청 기아차, 난징 LG에너지솔루션 등)이 진출해 있어 한중 공급망에 있어 핵심 지역이다. 특히 장쑤성 내 대표적인 한중 경제협력 지역인 옌청시는 인구 669만명, 경제규모(GRDP)가 약 1천억 달러로 국내 3위인 충남(23年 기준 1.1천억 달러)과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한중 옌청 산업협력단지 등에 자동차, 배터리 분야를 중심으로 기아차, SK온, 현대모비스, SK에코플랜트 등 1천여 개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 '24년 한중 교역액의 24.5%(805억불), 누적 對中 투자액의 27.5%(261억불)

김종철 통상협력국장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양국 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는 '한중 공급망 핫라인(한국 산업통상자원부-중국 상무부)' 등 중앙정부 차원의 협력과 함께 지방정부와도 직접 소통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면서, "특히 반도체, 배터리 등 주요 품목에서 한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는 장쑤성(옌청시)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지 한국 기업들의 경영활동은 지역 경제를 넘어 한중 간 교역 및 공급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장쑤성 및 옌청시 정부가 한국 기업들에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저우빈(周斌) 장쑤성(江蘇) 옌청(鹽城)시 당서기는 “한국 기업들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한국은 장쑤성과 옌청시의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한중 간 공급망 안정화 및 중국 내 한국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관하여 옌청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하였다.

한편 전날 2.13.(목) 서울(신라호텔)에서 저우빈 당서기, 김종철 통상협력국장,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쑤성 옌청시 투자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존 진출기업들이 중국 투자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성과를 소개하였으며, 자동차·배터리 등 기존 협력 산업 외에도 바이오, 식품, 서비스 등 분야의 한국 기업들이 참석하여 한국과 장쑤성 간 신산업 분야 협력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기업들이 주로 진출해 있는 중국 내 주요 지방정부(광둥성, 산둥성, 장쑤성, 랴오닝성 등)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중 공급망 안정화 및 현지 우리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통상협력국 동북아통상과	책임자	과 장	박현종 (044-203-5690)
		담당자	사무관	김지은 (044-203-569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